

일본 브로일러산업의 현황과 전망(1)

(편 집 부)

본지는 지난 4회에 걸쳐 「일본채란양계산업의 변천과정」을 소개한데 이어 이번호 부터 수회에 걸쳐 일본의 브로일러 산업의 변천과정, 현황, 전망을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도약,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육계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註)

1955년대 초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독립된 산업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와 기초가 주어지게 된 일본의 브로일러산업은 그후가 격관계 등에서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다.

중계로부터 사료의 생산원자재까지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으로서 기형아라는 사회의 준엄한 비판도 받았었다. 그러나 고도경제성장이 라고 하는 측면도 있어 브로일러산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다.

1979년도 산업규모를 보면 연간 초생추출하수가 6억1천만수, 생체 출하중량이 137만톤, 출하산출금액은 3200억엔(円)으로서 한 분야의 산업으로서는 비교적 거대한 규모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최근 브로일러산업의 생산량 추이와 발생하는 여러가지 현실에 눈을 돌려볼 때 일본 브로일러산업의 전도가 반드시 밝다고만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즉 1976년에서 79년까지의 초생추출하수와 출하생체중량의 연평균 성장율을 보면 각각 8%, 12%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80년 이후에는 수요의 신장과 수입수량의 증가 등에 강한 영향을 받아 초생추출하수와 출하생체량도 전년에 비해 대

폭 하락하여 81년에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못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최근의 브로일러 수요증가의 두통거리와 초생추수입수량의 증대 등의 사태는 일본 브로일러산업의 현황과 장래에 대하여 어두운 먹구름을 던져주는 꼴이 되었고, 그 결과 브로일러산업이 지금까지의 외형 위주의 성장과정에서 브로일러산업 자체가 안고있는 구조상의 여러가지 결함, 모순, 약점 등을 한꺼번에 표면화시키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과거에도 일부 생산업자의 경영부진과 적자에 의한 생산활동에서의 이탈, 처리사업의 경영적자 누적이 현실화되었고, 부분적으로는 한 두 회사가 경영난과 파산사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1년 봄부터 82년 봄까지 브로일러 업계에서 일어난 대도시권내의 화주회사들이 도산하는등 일련의 사실은 일본 브로일러업계에 큰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와같은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접하면서 일본 브로일러산업의 역사와 현황에 대하여 정리 평가

하여 앞으로의 전망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일본 브로일러산업의 발전사를 회고하기 위하여 제 1 장에서는 브로일러의 공급 변화, 제 2 장에서는 브로일러의 수요 변화, 제 3 장에서는 가격변화관계를 기술하고, 제 4 장에서는 이상 각장과 관련되는 브로일러산업의 지금까지의 변화내용 등을 주로 언급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 4 장이 이 글의 중심부를 차지하게 되며 브로일러산업에 대한 일정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브로일러의 공급 변화

1) 생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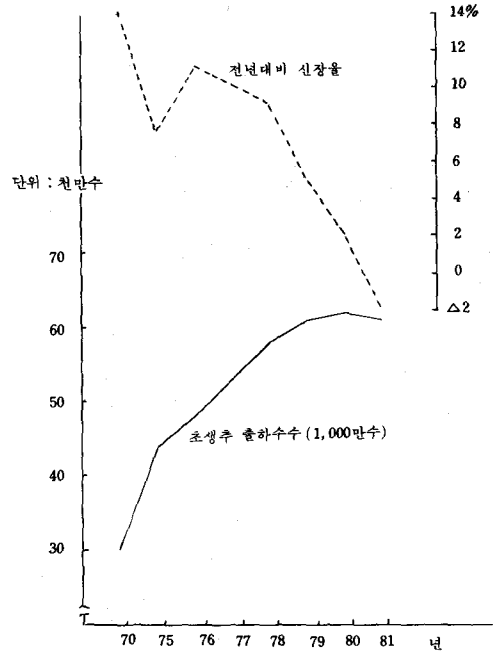
브로일러 출하수의 추이를 다소 장기적으로 본다면 1970년의 3억수에서 81년에는 6억 1천만수로 배로 증가하고 있다. 연 6.5%라는 급피치로 그 규모가 커진 것이다. 11년동안(도중 75년에는 전년대비 약간 하회) 81년에 전년수준을 하회할 때까지 전과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두시기(75년, 81년)는 각기 차이는 있으나 제 1, 2차 오일쇼크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81년에 발생한 정체현상은 선행하는 시기의 상황, 다른 식육상황 등에서 볼 때 적어도 일본 브로일러산업이 일시적으로나 조정의 입장에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도 최근 수년간의 브로일러 초생추의 출하동태를 알아보기로 한다.

그림 1 과 같이 브로일러 초생추출하수는 70년에서 75년까지는 연 성장률이 27.5%로 높았다. 76년에서 80년까지는 다소 저조하였으나 80년부터는 연율 5%로 신장했다. 최근 6년간을 상세히 분석하면 76년 이후의 초생추출하수는 해가 갈수록 떨어져 79~81년간의 연평균 신장률은 0.3%로 신장률의 둔화를 보였고, 81년의 신장률은 전년대비 마이너스 2%였다.

이와같이 근년 브로일러 초생추출하수가 급

그림 1. 브로일러 초생추출하 신장률



속히 둔화되거나 정체되는 이유에 대해서 수요측과 공급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수요측의 이유

- 장기적인 면에서 볼때 인구성장률이 둔화되고 과거와같이 인구증가에 의한 추가적인 브로일러 소비신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 일본형 식생활의 정착화 등이 최근의 현상이고 소비자의 식료품소비도 성숙되어 가고 있으나, 국민 1인당 칼로리 섭취량도 2,500Kcal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추세이고 국민 1인당 식료품소비량도 신장을 못하고 있다.
-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의하여 제 3차산업 등 비교적 경노동쪽으로 취업률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고, 같은 직종이라도 기계화 시설현대화에 따라 노동의 질 자체가 과학화된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 타식품과의 대체관계, 경합관계 등이 강하여

브로일러 소비자체가 상한선에 달해 있다.

- 전부터 전해오는 바와 같이 브로일러 닭고기는 딱딱하고 맛이 없다고 하는 평가가 정착화되어 소비가 늘지않고 있다.
- 단기적으로는 실질소득과 실질가처분소득이 늘어나서 두통을 앓고 있고 국민의 전체적인 소비지출이 억제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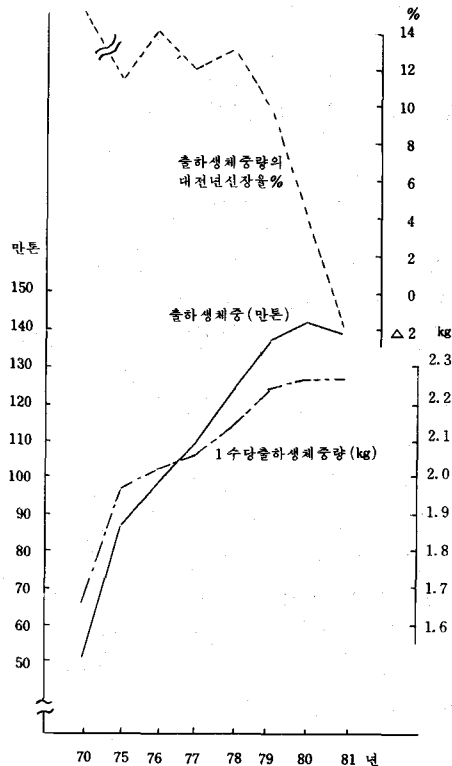
●공급측의 이유

- 지금까지의 산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온 국제 계열화주체나 국내 계열화주체 등 브로일러를 확장하려고 하는 태도나 가격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사업의 앞날에 대한 불안 등과 관련해서 하향으로 변해간다.
- 켄터키후라이드치킨, 롯데리아, 처치 등의 비교적 새맛을 가지고 있는 판매채널의 보급 확대 또는 이와같은 방면에서의 브로일러유통량의 증대도 그다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 처리장, 계사건설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 자금이 공해관계설비와 관련, 설비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과 아울러 급격히 상승하였기 때문에 시설의 확장이나 신설이 억제되어 왔다.
- 지금까지 브로일러생산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 오던 생산자 가격보장같은 방식이 사료관계 사업운영의 이익폭 축소 등이 배경이 되어 한계선에 달했다.
- 도매점의 점포수, 점포면적 증가 등이 완만하게 진행되는데 지금까지와 같은 점포확장으로는 브로일러취급 수량증가는 어렵게 되었다.
- 브로일러의 기초가 되는 초생추공급자체가 과잉되어 전년동기보다 증가하여 매매가 부진하다.
- 수입중계의 증가로 물량면은 물론이고 가격면에서도 국내산과도 경합이 심해졌다.
- 마리당 수익저하로 소규모생산자는 브로일러 산업에서 손을 떼고 후퇴하고 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요인이 쌓여서 발생하였

다고 본다.

81~82년에 걸쳐서 브로일러 초생추출하량 신장의 정체화현상은 75년에 발생한 제1차 오일쇼크후의 일시적인 정체(이때의 신장을 저하는 당년으로서 종식되었고 다음해부터 신장율은 높아지고 있다)와 명확하게 성격이 다르고 수요공급의 구조변화를 수반한 것이기 때문에 극히 뿌리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간의 변화를 출하생체량 및 신장율, 마리당 생체량의 연차적 추이를 보면 그림 2에 표시된 바와 같다.

그림 2. 브로일러 생체량 변화



출하생체량 및 전년비 신장율에 대해서는 출하마리수에서 기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첨언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1마리당 출하시의 생체량의 변화를 알아보기로 한다.

1 마리당 출하시의 생체량은 75년의 1.69kg에서 79년의 2.24kg이 될때까지는 거의 직선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80년, 81년에 와서는 그 신장에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1 마리당 출하생체량이 79년까지의 급속한 상승은 상품 소재로서의 브로일러수요면에서 큰것을 요망했기 때문이다. (도매집에서는 다리, 가슴 등 정육에 대해서는 거의가 일정중량으로 포장 판매하고 전문점에서도 일정중량을 팔기때문에 크면 클수록 돈을 더 받고있어 자연 큰것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 같은 사육일령이라도 체구가 크도록 육추방법도 개선되었고 사육관리 기술도 향상되었다. 닭질병예방약의 보급과 예방기술의 향상, 사료의 품질개선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근년에는 이러한 신장이 둔화되었고, 이러한 현상대로의 사육조건이라면 1 마리당 출하생체중의 신장도 상한선에 도달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2) 생산지의 지역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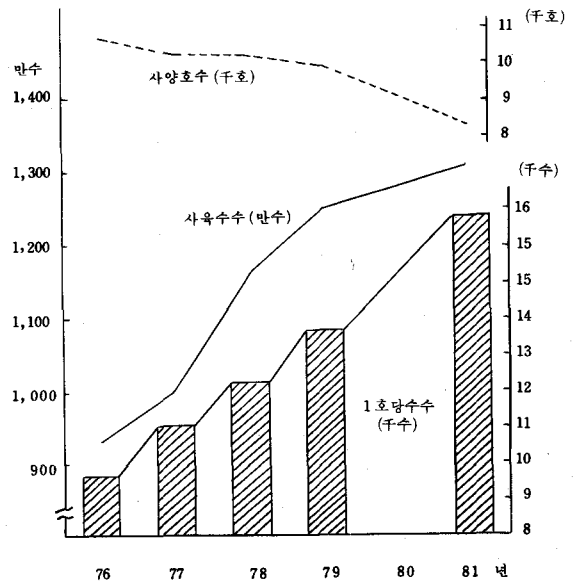
전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급량의 증가는 공급의 지역적 변동과 출하농가의 변동 가구당 사육규모의 변화 등이 수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급내용면의 변화가 여하히 되는가를 보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 그림 3~5이다.

그림 3에서 분명한 것은 사육농가는 감소하는데 비해 호당 마리수는 증가하고 총사육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79년경에는 사양호수가 1만호 정도 이던것이 81년에와서는 다시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그림 4는 출하수 수면에서는 각기 감소하는 하는 경사선 右下하는 경사선으로 표시된 두개의 지역, 구주와 동북의 신장이 현저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주는 75년의 34%에서 80년에는 37%로 구성비가 올라갔고, 동북지방도 75년의 10%에서 80년(13%로 구성비가 높아졌다. 그 결과 80년에는 브로일러 전구출하량의 50%를 이 두지역에서 분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출하농가호수면

그림 3. 브로일러의 대규모화 추세



에서는 구주 동북지방에의 집중성은 별로 없다. 80년의 양지역의 호수구성비는 각각 29%, 10%로 합하여 39%이다.

다음에 그림 5와 같이 연간 호당 출하수수는 큐슈, 동북순으로 높은데 동해, 관동, 동산 등에서도 비교적 높으며 어느 지역에서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이 중소규모농가의 브로일러 사업에서의 이탈과 대규모층의 사육규모확대가 동시에 병행하기 시작하여 그 결과로 각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3) 생산형태의 변화

앞에서 보아온 바와같이 생산량의 증대나 생산지역의 변화, 호당 사육수수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변화는 한편으로는 상품의 유통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80~81년사이에 일어난 신장의 하향변화는 브로일러의 출하상품형태의 변화를 수반하였고 상품형태마다 판이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그림 4. 연간 브로일러 출하호수, 출하수수의 지역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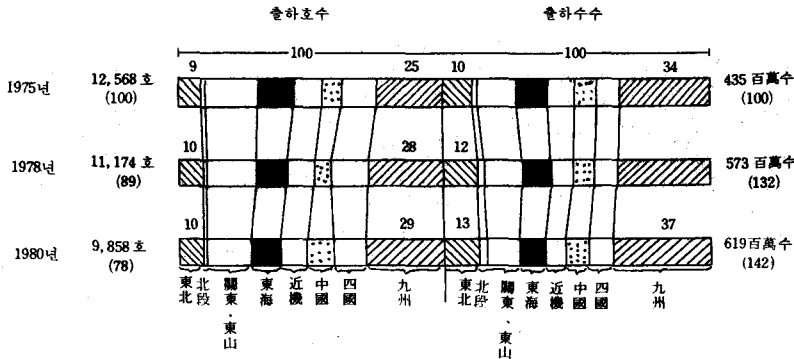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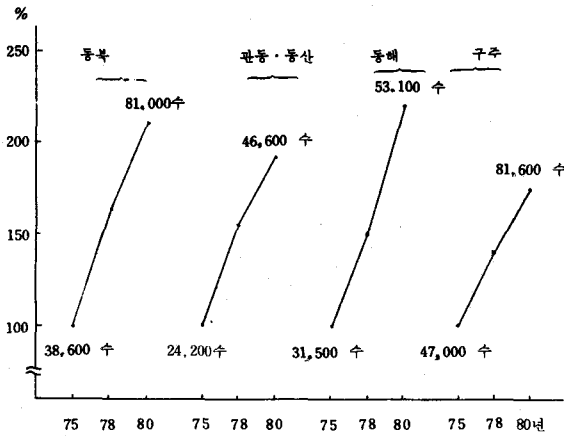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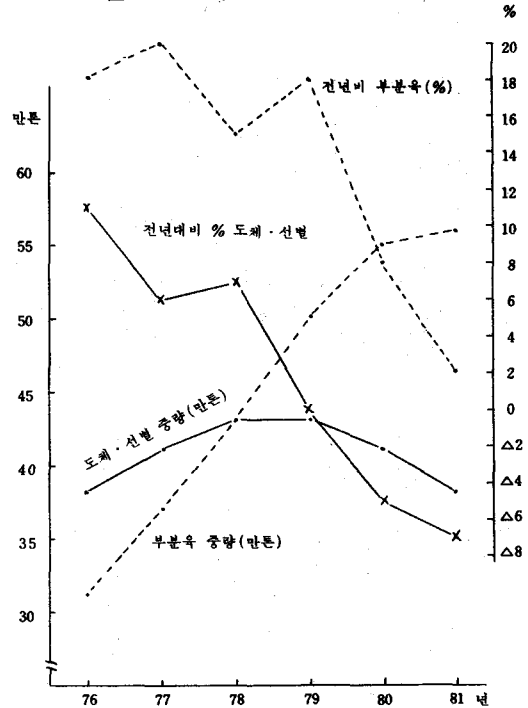
그림 5. 연간 호당 출하수수의 변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작성한 것이 그림 6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도체 선별 형태의 출하중량이 78~79년에 43만톤대의 좋은 수준을 형성하였으나 그후 80년~81년에는 감소추세로 전락했다. 더구나 전년대비 감소율은 5%, 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부분육형태의 출하중량은 80년까지는 거의 순조롭게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81년에는 신장세가 두통거리로 나타났다. 전년비 신장율은 80년에 8%대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81년에는 약 2%신장으로 급락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림 6. 도체, 선별형태 출하의 변화



이와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출하수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부합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보다 더 상세히 검토하여 보면 다음 사항과도 부합된다. 즉 2)절에서 기술한 브로일러생산지역의 분포에 나타난 변화가 그것이다.

브로일러생산지역은 대소비지와외의 공간적 시간적 거리와 생산지단계에서 최종 상품형태로의 두가지 기준이 결합되어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도시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도계장중심의 도계품산지,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원거리지역 동북, 구주지방의 도시출하는 도계장에서 부분육으로 운반한다. 원거리도계품과 산지도계품 외에 이 양자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중간형산지가 그것이다. 그래서 이들 세가지 타입의 생산지는 생산지의 구성규모, 생산지의 형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근교의 도계산지는 산지로서의 단위와 규모가 적고 호당 사육수수도 비교적 적다. 즉 자연발생적인 큰 생산지(근교 생산지라도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고 계획적 생산지같은 성격을 가진 큰 생산지도 있지만, 원거리에서 도계생산물산지와 비교하여 보면 그 성격을 대단히 약한 것이며, 중간형,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많다.)에서 공해, 용지(用地) 등의 관계로 규모확대가 억제되어 왔었고, 생산자들도 규모를 확장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편 원거리 도계품생산지는 일개 소단위의 생산지로서 규모도 크고 당연한 일로서 호당의 사육수수도 크고 단지 성격이 강한 산지(가고시마, 미야사끼, 이와테 등에서 상사 및 농협 계열에서 전개하고 있는 거대한 생산지는 거의가 전형적 형태이다.)이며, 75년대 초기까지는 계열화주체의 의향도 있어 규모확장에 의욕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중간형생산지는 양자의 중간역의 성격을 띠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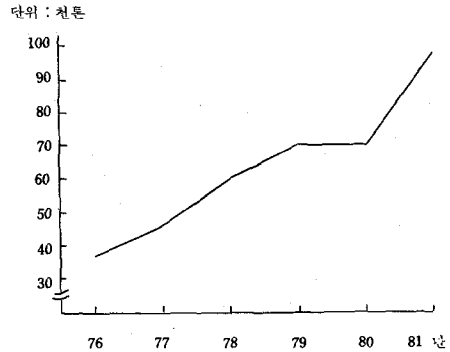
이와같은 생산지 구성기조에서 구주나 동북에 위치한 지역의 수요자층의 요구(큰 도매점은 원칙적으로 부위별형태 브로일러의 취급에 편중되어왔으나 전 유통광중 큰 도매점에서 브로일러의 취급비중이 높아지고 필연적으로 부위별 해체품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수도권에서 취급기관의 상품취급형태의 변화와 소매점의 상품취급 형태의 변화 등에 의하여 부위별 도계품

이 줄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에 응하여 한층 높은 공급비중을 갖게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4) 브로일러의 수입

브로일러의 수입량은 76년의 37,000톤에서 81년의 98,000톤으로 그간 일시 중지되는 듯도 했으나 여전히 계속 증가되고 있다.

그림 7. 브로일러 수입량의 증가추세



브로일러는 원래 국제무역상의 IQ 품목(가트 규정상의 비 자유화 품목이다. 일본의 IQ 품목에는 쇠고기, 오렌지 등 농산물로 19개 품목에 걸쳐 잔존 수입규제품목과 쌀, 보리, 주요 유제품 등의 국가무역품목이 있다.)은 아니고 당초부터 AA 품목(자유화품목)으로 되어있고 그 수입수량을 결정하는 것은 관세, 국내외 가격차, 결제방법, 상품의 성질, 계약의 양태 등에 있다고 본다.

그림 8의 수입국의 변화 등을 참고로 하면서 브로일러의 수입수량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온 배경을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되리라고 생각한다.

첫째 개발수입에 관한 것을 들수 있을 것이다. 개발수입형으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태국인데 이 나라에서는 현지의 값싼 젊은 여성노동력, 브로일러생산에 혜택을 보는 따뜻한 자연조건, 양적으로 불안정하다고는 하나 자국내에서 생산,

조달 가능한 화교의 자본, 일본상사 자본, 기술을 결합시켜서 그 대부분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형식으로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8. 수입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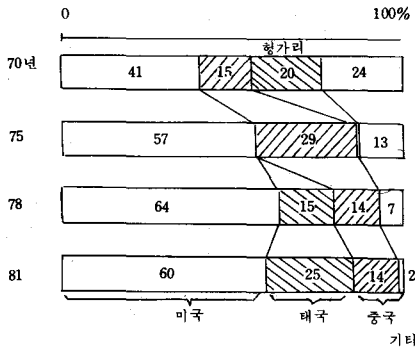


그림 8을 보면 잘 알수 있다. 75년의 0%에서 78년에 15%, 81년의 25%로 일본의 브로일러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온 것은 저간의 사정이 강하게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일본의 최대 수입국인 미국에 관한 것이다. 미국산은 거의가 미국적 형태의 상품이었으나 그대로 일본국내의 전문점 루트를 통하여 판매를 하는데는 여러가지 장애가 생기고 하여 일본의 등급과 규격에 적합한 상품으로 제조되어 수입되는 것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물로서 일본 국내의 수급상의 부족이 온다거나 장래 부족을 예측할 수 있는 물건 등에 대해서는 고정적인 수량이 유입되도록 되어 있다.

셋째는 국내의 큰 도매점에서의 직접 수입의 문제이다. 일본도 복잡한 판매망을 강력히 일원화 하고 해외에서 직수입을 대형화 하여 1넛트씩 수입하게 되었다. 냉동기술, 냉동수동기술, 해동기술 등이 향상되어 상품의 품질문제가 거의 없어졌다는데서 가격의 안정성에 힘입어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넷째는 이것도 중대한 문제로 앞으로 원료로서 수입가망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사항이다. 국내유통에서 브로일러의 상품부위별 수요를 보면 다리고기의 판매가 제일 많다. 부분육처리장의 가동율대책(일본내에서 작업이 계속되지 않을 때 수입브로일러를 처리)과 수반하여 원료로서 수입한 브로일러 사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밑에서 수입량은 81년에 98,000톤에 달하고 미국, 태국, 중국 3개국의 총 수입량은 98~99%를 점유하게 되었다.

(계속)

훈식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 쌀의 영양적 결함을 해결해 준다
- 보리훈식은 소화가 잘 된다
-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
- 훈식은 미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